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미 증시,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혼조세 마감

Key Takeaways

- 다우지수, 금융주 강세에 역사적 신고가 경신
- 국제통화기금(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9%에서 3.1%로 상향 조정
- 12월 구인건수 전월대비 10만건 증가한 903만건 기록

변화요인

- 다우지수는 대형은행들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힘입어 역사적 신고가를 재차 경신. 다만, 12월 채용공고가 예상 외로 증가하고 견고한 소비자신뢰지수의 영향으로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약화되며 기술주와 중소형주는 부담. 애플이 올해 iPhone 판매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에 2% 가까이 하락하였고 AMD,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역시 영향을 받아.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아람코가 생산량 증대 계획을 포기한 영향으로 원유 시추 장비 및 서비스 회사의 주가도 부진. 안전자산 수요 증가 영향으로 국제 금 가격은 상승해 온스당 2050 달러를 기록하였고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성장률 상향과 지정학적 긴장감 영향으로 상승. (다우 +0.4%, 나스닥 -0.8%, S&P500 -0.1%, 러셀2000 -0.9%)
- Up, Up, Up: IMF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지난 10월 전망한 2.9%보다 높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구체적으로는 미국(1.5%→2.1%)과 중국(4.2%→4.6%)의 전망치를 상향. 또한, 12월 채용공고는 전월대비 10만건 증가한 903만 건을 기록. 이는 근로자 1~9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약 34만건의 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 현재, 미국의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1.44개로 팬데믹 이전 평균인 1.2개보다는 소폭 높은 상황. 지난 11월 미국 주택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이를 종합하면 추세적으로 진행되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라 연준의 피벗(금리인하)은 올해 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과정은 신중을 기할 듯.

특징종목

- 애플(AAPL, -1.9%)은 올해 iPhone 시리즈 출하량이 전년대비 10~15%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에 약세. 다만 TF증권 귀밍치 애널리스트는 최근 공급망 조사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애플의 중국 내 주간 출하량이 전년대비 30~40%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AMD(AMD, -3.2%)는 레이몬드 제임스가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하자 약세 기록. 이외 반도체 업종 전반의 차익실현 압력 커지며 퀄컴(QCOM, -2.4%), 마이크론(MU, -3.3%)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도 1.4%나 하락. 반면, 모건스탠리가 씨티그룹(C, +5.5%), 뱅크오브아메리카(BAC, +3.5%), JP모건(JPM, +2.0%) 등 대형은행에 대한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금융섹터(XLF)가 1% 넘게 상승. MSCI(MSCI, +9.3%), 제너럴모터스(GM, +7.8%), 뉴코(NUE, +6.9%) 등 시장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강세. 특히, 매리선 페트롤리엄(MPC, +6.1%)을 비롯한 S&P 500 내 70여개가 넘는 기업이 52주 신고가를 기록. 그러나 UPS(UPS, -8.2%), 월풀(WHR, -6.6%), A.O. 스미스(AOS, -2.0%) 등 시장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부진. 또한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원유 생산량 증대 계획을 포기했다는 소식에 웨더포드(WFRD, -12%), 슬러머거(SLB, -7.2%) 등 원유 시추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가 큰 폭 하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최근 헝다그룹(Evergrande) 청산 및 약한 경제성장 전망 등을 반영하며 2.47% 기록. 이는 2002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반면, 미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06%를 기록하며 미-중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격차는 지난 해 10월 -227bp까지 확대됐던 것이 현재는 -160bp 기록. 이는 2006~2007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양국간 수익률 역전은 2022년 8월 초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한편, 국제유가는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과 요르단 공군 기지 피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 우려로 전일대비 1% 넘게 상승하며 WTI는 배럴당 77.8 달러에 마감. 또한 국제 금 가격은 안전자산 수요 증가 영향으로 1% 넘게 상승하며 온스당 2050달러를 상회. 최근 3만 9천달러 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4만 3,600달러 선에 근접.

한국증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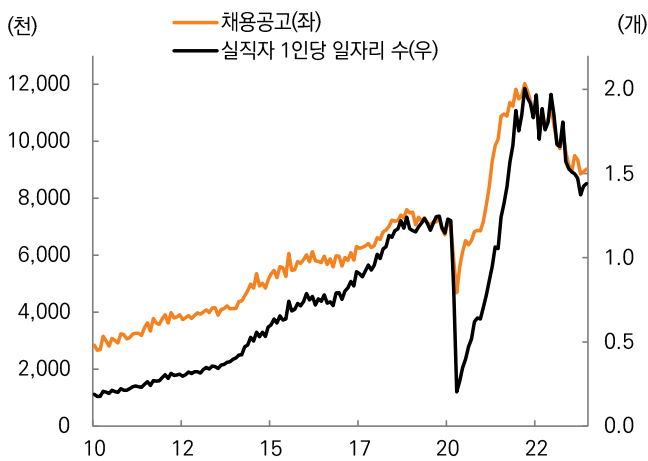
• MSCI 한국 지수 ETF는 0.4%, MSCI 신흥 지수 ETF는 0.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7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 하락. **KOSPI는 0.1~0.3% 하락 출발 예상.**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영향으로 PBR 1배 미만의 저평가 주식 중심으로 단기 모멘텀이 발생. 그러나 이게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국내외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가능. 최근 일부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등 글로벌 스탠다를 반영하는 사례 증가하는 중.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 금일 국내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의 장 마감 후 실적 및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내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다만, 애플의 iPhone 판매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점은 부담. 장중에는 국내 12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와 같은 실물경제지표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1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에 주목할 필요.

그림 1. IMF 세계 경제 전망

	Year over Year					
	Estimate		Projections		Difference from October 2023 WEO	
	2022	2023	2024	2025	2024	2025
전 세계	3.5	3.1	3.1	3.2	0.2	0.0
선진국	2.6	1.6	1.5	1.8	0.1	0.0
미국	1.9	2.5	2.1	1.7	0.6	-0.1
EU	3.4	0.5	0.9	1.7	-0.3	-0.1
일본	1.0	1.9	0.9	0.8	-0.1	0.2
이머징 및 개발도상국	4.1	4.1	4.1	4.2	0.1	0.1
중국	3.0	5.2	4.6	4.1	0.4	0.0
인도	7.2	6.7	6.5	6.5	0.2	0.2
대한민국	2.6	1.4	2.3	2.3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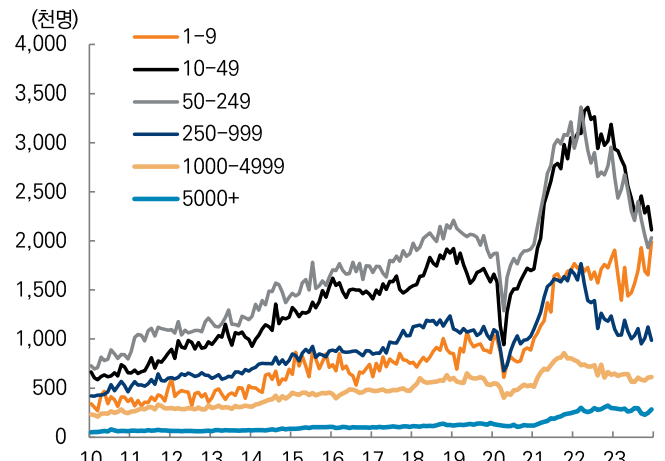
자료: IMF,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2. 미국 채용공고 및 구인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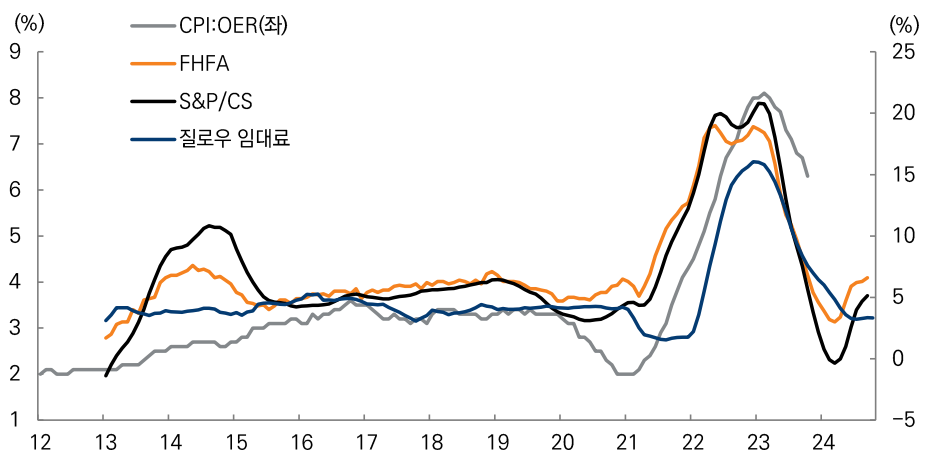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3. 미국 기업 사이즈별 채용공고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4. 미국 주택가격 및 주거비 인플레이션



자료: 미 노동부,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주: 전년동월대비 및 주택가격은 12개월 lagging 기준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8	대형 가치주 ETF (IVE)	+0.3
클린테크 ETF (CTEC)	-1.1	중형 가치주 ETF (IWS)	-0.2
소매업체 ETF (XLY)	-0.1	소형 가치주 ETF (IWN)	-0.6
온라인소매 ETF (EBIZ)	-1.7	대형 성장주 ETF (VUG)	-0.6
미국 인프라 ETF (PAVE)	-0.7	중형 성장주 ETF (IWP)	-0.3
핀테크 ETF (FINX)	-1.3	소형 성장주 ETF (IWO)	-1.1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9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
클라우드 ETF (CLOU)	-0.5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4
사이버보안 ETF (BUG)	-0.5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7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8	미국 국채 ETF (IEF)	+0.1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2	하이일드 ETF (JNK)	-0.2
바이오섹터 ETF (IBB)	-0.7	신흥국 채권 ETF (EMBD)	+0.3
로봇&AI ETF (BOTZ)	-1.1	물가연동채 ETF (TIP)	-0.0
반도체 ETF (SMH)	-1.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금융	652.47	+1.2	+2.8	+4.2
에너지	649.04	+1.0	+5.3	+1.4
필수소비재	778.06	+0.6	+1.3	+2.1
소재	525.07	+0.4	+0.6	-2.7
헬스케어	1,637.40	+0.2	+0.4	+3.0
산업재	966.92	+0.0	+0.9	+0.2
유틸리티	312.97	-0.0	+1.3	-2.8
경기소비재	1,393.51	-0.2	+0.4	-1.7
커뮤니케이션	268.46	-0.7	+3.6	+9.1
IT	3,606.16	-0.7	+0.3	+6.2
부동산	241.25	-0.9	-0.7	-4.1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7.82	+1.3	+4.5	Dollar Index	103.414	-0.2	-0.2
브렌트유	82.87	+0.4	+4.0	EUR/USD	1.0846	+0.1	-0.1
천연가스	2.08	+2.0	-14.4	USD/JPY	147.60	+0.1	-0.5
금	2,050.90	+0.5	+0.4	GBP/USD	1.2698	-0.1	+0.1
은	23.23	+0.1	+3.7	USD/CHF	0.8619	+0.1	-1.0
알루미늄	2,274.50	+0.4	+2.1	AUD/USD	0.6603	-0.1	+0.4
전기동	8,615.00	+0.7	+2.5	USD/CAD	1.3397	-0.1	-0.5
아연	2,564.50	+0.5	+1.8	USD/RUB	89.7533	+0.6	+1.2
옥수수	447.75	+1.7	+0.3	USD/BRL	4.9501	+0.0	0.0
밀	605.50	+1.9	+1.4	USD/CNH	7.1885	+0.0	+0.3
대두	1,218.75	+2.2	-1.6	USD/KRW	1,329.40	-0.5	-0.3
커피	194.00	+2.5	+0.5	USD/KRW NDF1M	1,327.28	-0.3	-0.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038	-3.6	-9.1	스페인	3.171	+4.3	-9.9
한국	3.361	-8.0	-1.4	포르투갈	3.056	+1.9	-13.7
일본	0.717	-0.6	+4.6	그리스	3.278	+5.3	-12.6
독일	2.268	+3.3	-8.4	이탈리아	3.797	+6.3	-12.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